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성평등한 공동체, 여성의 한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빈곤·폭력없는 안전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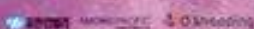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6th

2010. 3. 6(토) PM1:00~5:00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 시민난장 13:00~17:00 ▶ 기념식 14:00~15:00 (사회 권태호, 좌장기 / 축하공연 강하달림) ▶ 세계여성행진 15:00~17:00 (사회 권준호, 방자부인 / 축하공연 페스티벌)

후원  후원 

협찬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자매여성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중)
여성연합 최영단체 경남여성회, 가톨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세계상업은행주요여성공동체, 서울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
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안전관리대, 학교폭력예방한국학부모회, 충북여성인문회, 광주광역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
여성인문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시민·사회·문화·인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여성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국제연대네트워크 한국자부 나눔의집국제활동
원 녹색연합 대학생사실연대 여성매체총합상회 독도수호대 동학여대총학생회 문화이제이프 문화여성이프로젝트 문화연대 미취고교농촌노동자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서
단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생명학교를위한한스리화 성산여대총학생회 삼인지애산전국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안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립자지공동체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한부모네트워크(중) 참여연대 참의도살한참한한여성회 광대참여자치시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전국연대 한국기
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회 환경정의 KYV(한국청년연결)

문의 02)313-1632 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K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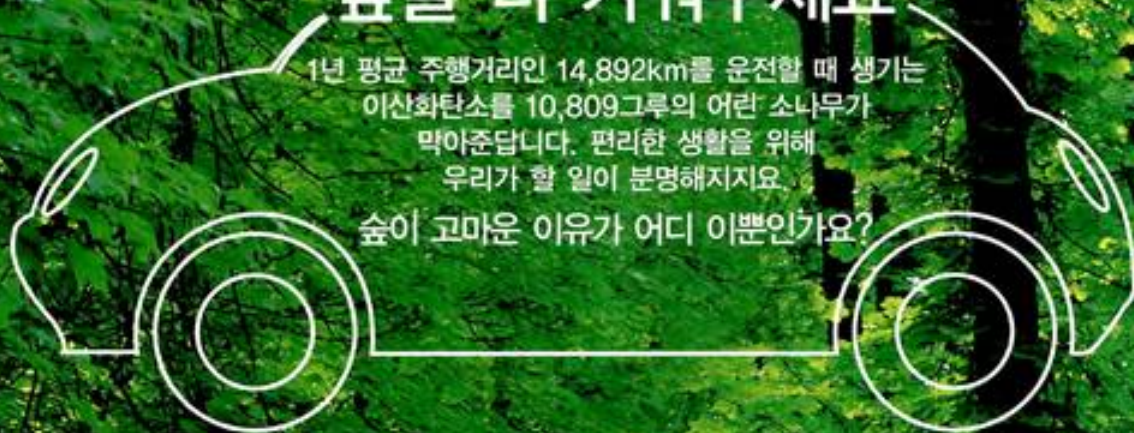


편리한 교통을 위한

10,809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숲을 더 가꿔주세요

1년 평균 주행거리인 14,892km를 운전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10,809그루의 어린 소나무가
막아준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쇼핑의 감동으로
고객님이 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국가고객만족도
TV홈쇼핑 부문 8년 연속 1위
(2002~2009)



국가브랜드경영력
TV홈쇼핑 부문 4년 연속 1위
(2006~2009)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TV홈쇼핑 부문 4년 연속 1위
(2006~2009)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TV홈쇼핑 부문 1위
(2009)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온 대한민국 Lifestyle Shopper, CJ오쇼핑!

가장 사랑받는 쇼핑의 리더로 인정받은 만큼
더 나은 서비스와 감동으로 찾아 가겠습니다

CJ O Shopping
LIFESTYLE SHOPPER

기증

축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3월 8일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올해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3·8 세계여성의 날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소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6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의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연합이 마련한 난장에서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몸짓들이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올해 여성대회 슬로건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010년에도 여성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공동체를 위해 더욱 전진합니다.

신낙균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여성이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국의 섬유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노결성의 자유, 투표권 쟁취 등의 요구를 내걸고 거리에 나선 지 102년이 지났습니다. 102년전 노의 권리와 참정권을 요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이 한국여성대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의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는 내용으로 여성대회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02년전 참정권을 요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구를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 없이는 결코 희망이 현실로 될 수 없다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러분, 여성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 노력해나갑시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망하는 과제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버거운 일상 속에서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갖가지 행사를 통하여 그 첫 마음을 되새기는 축제를 열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고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행사의 의미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의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커다란 공감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여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소망하는 과제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와 전통이 지향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큰 획을 긋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여성단체연합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칭송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한승헌 변호사



연대와 참여로 소통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모여지기를 희망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리는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여성들의 평등과 희망을 향한 '3.8 세계여성의 날', 우리의 염원은 100여년을 지난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2010년 한국여성대회를 통해 여성들의 연대와 참여로 우리 사회의 소통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모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의 날을 기리는 메시지

'아이에게는 흥년이 없다'(한국 속담) 했습니다. '여자 없는 집안은 고아들 뿐'(카자흐스탄 속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녀는 아이 낳고 사흘이면 바다에 든다'(제주도) 했지요. 동서고금을 가릴 것 없이 여성의 희생과 헌신은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성들에게 끝없는 희생과 복종을 강요했을 뿐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는 지극히 인색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한국, 콜롬비아), '양을 못 쓰게 만드는 건 들쥐, 나라 망치는 건 여자'(티베트), '양떼의 선두에 암탉이 있는 것은 유감'(영국, 미국)이라는 등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데도 역시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인 보통선거권을 가진지는 인류 역사에 비추면 최근의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인류는 어떠한 찬탄과 감사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부끄러움조차 모릅니다. 오늘의 한국 상황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 폭력과 부당 해고, 비정규직 문제의 희생자는 여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는 특히 한국의 남성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여성 문제는 단순한 차별 철폐나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문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수경 회계사 주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과 강한 파트너십으로 연대해 나갑시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6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한국여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월의 봄소식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 축제가 시작되는 것은 앞으로 여성의 역할이 우리사회의 봄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경증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대한의 딸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쾌거는 "한국 여성이 강하다"는 감탄을 세계에 이끌어 내었고, 그녀의 어머니 박미희여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는 오늘의 기쁨을 만들어낸 근원지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파워풀한 여성의 모성애는 생명의 근원입니다만,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상처받고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최초의 여성총리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여성리더들이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31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 1325 조항은 우리시대의 모든 갈등의 예방·해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주의 관점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 딸들이 각자의 소질과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세계를 향해 건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활짝 웃을 수 있음을 다짐하며, 오늘 여성의 날을 기해 우리들의 행동이 보다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휘되어지고 강한 파트너십으로 연대해 나아갈 것을 희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여성대회'의 장을 마련하고 축하와 연대의 희망을 실어주고 계시는 주최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선종 원불교중앙훈련원 원장



3·8 세계여성의 날 유래

'세계여성의 날' 유래와 한국 '여성의 날'

오늘날,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매년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 날의 역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한다.

1908년, 미국 맨하탄에서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한편, 1910년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1911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부터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행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중반인 일제시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조선부녀총동맹'은 1946년과 1947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념주일을 설정해 행사를 열기도 했다.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 정에서 맥이 끊어진 후, 1985년 3월 8일에 전국 14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2월 창립이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하여 2009년까지 제25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8년부터 전국 지부와 함께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 여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를 공공히 하는 행동과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8 세계여성의 날', 2010년 제26회 한국여성대회는 전국 18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겨울의 터널을 지나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움추렸던 마음을 털고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지금부터 102년 전, 미국의 섬유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보장을 요구하며,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단체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빈곤과 폭력없는 세계를 향해 걸어가'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여성행진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여성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과 평화가 후퇴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배제가 노골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하지만 여성고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감소했고, 여성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일자리 대책은 관심도 없고, '퍼플잡' 처럼 생색내는 정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라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해고는 증가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눈치휴직'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남성의 돌봄참여는 멀기만 합니다.

이제 여성이 나서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무한경쟁과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일상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여성행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성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을 말살하고, 성차별과 폭력을 방치하는 보수정치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 차원에서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고 여성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성평등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성의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냉소와 분열을 극복하고, 가슴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희망을 만들고 현실이 바뀌는 그 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시민난장 '컬러풀 플리마켓'

1:00~5:00

이대 대강당 앞

- 안내센터 : 자료집 및 기념품 배포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 만들기 참여부스 : '세계여성행진 한국행사' 거리행진 용품 직접 만들기
- 여성운동 바자회 : 여성단체들의 회원확대와 자활공동체 물품 판매 등을 통한 기금모금 등 부스운영
- 제26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및 그 외 단체 시민난장

기념식

* 사회 : 권혜호(여성연합 홍보대사, 배우), 최광기(전문사회자)

2:00~3:00

이대 대강당

- 개막영상
- 인사말(대회사) : 남윤인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축사 :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오이슬 덕성여대 사회대 회장
- 참가자(단체) 소개
-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발표, 디딤돌 시상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기 캠페인' 선언 퍼포먼스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선언
- 축하공연 : 강허달림

세계여성행진 한국행사 '빈곤과 폭력없는 세계를 향해 걸어라!'

* 사회 : 천준호, 망치부인(이경선)

3:00~5:00

이대거리

- 행진 코스 : 이화여대 정문 → 신촌기차역 → 신촌길(민들레영토쪽) → 창천문화공원
- 마무리 행사
 - 힘찬 구호와 함성
 - 대중연설
 - 마무리공연 : 페스티벌
 - 대동놀이

행사명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

일시 2010년 3월 6일(토) 오후 1시~5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나다순)

주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전국 18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회, 강화여성회, 거제여성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마산지부,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주),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부설성매매지원센터 '한울지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안니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군산여성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여성회, 김포여성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회, 나눔의집국제활동팀,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여인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느티나무, 대전여인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대학생사람연대, 덕성여대총학생회, 독도수호대, 동덕여대총학생회, 동래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회, 문화미래이프,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문화연대, 미식고기군남반대모임,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여성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사상여성회, 사하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성신여대총학생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부설어깨동무상담소, 수원여성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시흥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회, 양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여성회울주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남구지부, 울산여성회동구지부, 울산여성회중구지부,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여성회, 익산여성회, 인권회망센터'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립지지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한부모네트워크(준), 전남여성농민총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상담소해남,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각장애인여성회, 청주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평화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건강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전주지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회,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주부모임, 함께하는주부모임, 햇순여성상담센터, 환경을지키는여성회, 환경정의

3.8 여성 선언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도록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동체도 붕괴되고, 승자가 독식하는 정글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소망, 이사 안다니고 살 수 있는 내 집 갖기,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보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적당한 문화와 여가 등이 보통사람들의 소망이었지만 이것마저,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딸을 선호한다지만, 대학을 졸업한 딸은 곧바로 실업자가 되거나 시집가는 것으로 취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알파결은 극히 일부 계층의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저도 해고당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맛벌이를 하지 않으니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지만, 집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낙태근절을 외치는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여성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양극화된 사회를 바꾸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민주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성평등한 공동체, 여성의 한표로 이루자!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남성과 함께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정책, 빈곤의 여성화를 해소하고,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성평등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여성의 한표로 지방자치 확 바꾸자!**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자!**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은 여성노동자이며, 모든 연령의 여성이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육아나 가사노동의 1차 책임자는 여전히 여성입니다.

맛벌이 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은 일과 가족생활을 모두 잘 해야 하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

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면서, 함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해고 근절, 공보육 시설 및 방과후보육 확대, 기업의 장시간 노동과 회식문화 개선, 육아휴직의 급여 확대 및 남성할당 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

빈곤·폭력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대책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공원,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동네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한부모·이주·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빈곤과 폭력없는 안전한 세상, 여성의 힘으로 쟁취하자!

2010. 3. 6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2008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여성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해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정부정책을 요구하고, 사회와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캠페인'을 2010부터 시작합니다.

■ 요구안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여성노동자 차별 및 해고 금지.
- 관청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3배 확충,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교실 설치.
-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일과 생활 양립을 저해하는 장시간 노동과 회식 문화 등 기업문화 개선.
- 모든 출산 여성에게 기초출산수당 지급.
- 남성의 돌봄노동 권리 보장.

지역단체별 행사안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남여성대회

- 일시 : 2010년 3월 6일(토) 오후 1시~4시
- 장소 : 창원 정우상가 일대
- 슬로건 :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
- 주최 : 경남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경남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
 - 여성운동바자회 '컬러풀 프리마켓-다 모여라'
 - 개사곡 경연 대회
 - 대동놀이 및 퍼포먼스(38m 가래떡으로 여성억압을 표현하고 끊기)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여성대회

- 일시 : 2010년 3월 6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금남로 삼복서점 앞
- 슬로건 : 한 표로 획득하자, 여성의 권리! 불허한다, MB식 여성정책!
- 주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주최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동당광주시당
- 프로그램
 - 여성대회 : 여는공연 / 여성의례 / 대회사, 축하 / 3.8여성상 시상 / 참가단체 공연 / 여성발언 / 여성선언문 낭독 / 초청공연 / 대동 마당 및 폐회
 - 여성의례 홍보 버스 투어 : 전남대 후문 앞 / 광주역 앞 / 밀리오레앞 캠페인 / 충장로 시내 거리홍보전
 - 여성영화 '땅의 여자' 무료 상영 : 3월 8일(월) 오후 2시 / 광주NGO센터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7차 대구여성대회

- 일시 : 2010년 3월 5일(금) 오후 4시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 슬로건 : 여성의 참여가 대구를 바꾼다!
- 분야별 슬로건 : 성평등한 대구 여성의 한표로!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대구! / 빈곤과 폭력 없는 안전한 대구!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7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진보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전교조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경산여성회,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프로그램
 - 사전행사 : 대구인권센터 반성매매 캠페인, 단체별 버스 등
 - 17차 대구여성대회 : 1부(개회사 / 여성의례 / 대회사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축하공연 / 당사자 발언 / 성평등디딤

돌 걸림돌 수여 / 여성선언문 낭독), 2부(문화공연-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여노·여성노조)

- 거리행진 및 정리집회
- 3·8 세계여성의 날 토론회 "불안정 노동의 시대 여성노동자의 삶은?" : 3월 8일(월) 오후 4시 / 민주노총 중회의실(예정) [주최 : 민주노총대구본부, 비정규직철폐대구공동대위, 3.8여성의 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행사조직위]

■ 3·8 세계여성의 날 102주년 기념 대전지역행사

- 일시 : 2010년 3월 7일(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대전시 청남문잔디광장
- 메인 슬로건 :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 과제 슬로건 : 일자리 · 교육 · 살림살이 3대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여성유권자의 힘을 하나로! / 여성, 어린이, 장애인에게 안전한 권리를!
- 주최 : 대전여성단체연합(준)대전평화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민회, 아름다운가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 시설협의회, 전교조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장애인부모연대
- 프로그램
 - 시민난장 : 과제슬로건별 부스, 3·8 홍보 부스, 시민버룩시장
 - 본행사 : 풍물패 길놀이 / 슬로건 외치며 참가자 단체 줄넘기 / 시민발언대 / 노래공연 / 풍물패 대동놀이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1회 부산여성대회 기획서

- 일시 : 2010년 3월 6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서면 밀리오레 야외무대
- 슬로건 : 여성의 참여로 희망찬 부산을!
- 세부과제 : 여성의 한표로, 성평등한 공동체!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빈곤 · 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 고용안정 · 비정규직 권익개선! / 민간교류활성화를 통해 통일로 한걸음 더!
- 주관 : 부산여성단체연합
- 주최 : 2010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1회 부산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프로그램
 - 본행사 : 개회선언 / 참가단체,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아동 태권도 시범, 여성문화인권센터 뮤지컬, 청소년 합합댄스동아리 공연, 그룹 Blue Wave) / 2010년 3·8 여성선언문 낭독
 - 빈곤과 폭력 없는 세계를 향해 걸어가라 (세계여성행진 한국행사 기념)
 - 정리 퍼포먼스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15회 울산여성대회

- 일시 : 2010년 3월 6일(토) 오후2시~ 4시
- 장소 :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
- 슬로건 :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 주최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15회 울산여성대회 준비위원회(울산여성회, 울산 YWCA, 한국여성의전화 울산지부,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 프로그램
 - 시민참여마당 : 캐릭터 옷 입고 사진 찍기, 페이스페인팅, 생리대 만들기, 신발 던지기, 이주여성들에게 희망을 커피 나누기, 대중교통 이용캠페인 기쁨종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바닥 OX판, 희망나무, 급식 서명, 포디 프레임(4D 만들기, 과학실험)
 - 무대행사 : 기린 응원단 / 여는 인사 / 노래패 공연 + 율동공연(여성노래) / 여성선언문 낭독 / 집단 퍼포먼스 및 대동놀이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대회

- 일시 : 2010년 3월 8일(월) 오후4시30분~6시
- 장소 : 전북대 구정문 앞
- 주최 : 전북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사전 캠페인
 - 본행사 : 기념사 및 축사 / 3·8 여성발언(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성이 만드는 생활정치 새 바람,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 문화공연
 -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 캠페인 등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만들기 - 제주지역 저소득여성의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

- 일시 : 2010년 3월 18일(목) 오후4시~6시
- 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 슬로건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만들기
- 주최 :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 프로그램 : 기념식 / 제주지역 저소득여성의 빈곤실태 및 자활전망 토론회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2회 충남여성대회

- 일시 : 2010년 3월 6일(토) 오후2시30분~3시30분
- 장소 : 천안역광장
- 대회 부제목 :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향해 걸어라
- 주관 :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편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주최 : 3·8 충남여성대회 준비위원회 (23개 여성단체, 시민단체, 정당)

• 프로그램

- 대회사 및 연설 / 여성발언마당(여성실업빈곤, 여성폭력, 장애인, 공보육교육, 이주여성, 여성농민) / 영상상영 / 38인의 충남여성유권자 선언 / 노래공연, 율동공연, 수화공연 등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충북 여성대회

- 일시 : 2010년 3월 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청주YMCA 대강당
- 주최 : 충북여성연대(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의 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나눔)
- 프로그램
 - 3·8 여성대회 기념 여성행진 : 철당간 도청앞 기자회견 (2010년 여성10대과제) 각 당에 전달 행사장 도착
 - 본행사 : 개회 선언 / 내빈 및 참가단체 소개 / 대회사 / 축사 / 2009년 여성연대 활동 보고 / 2010년 여성연대 정책 발표(2010년 여성 10대 과제) / 충북여성 선언문 발표
 - 2부 : 공동체 놀이와 친교의 시간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포항 행사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특강 '손석춘과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
- 일시 : 2010년 3월 8일(월) 오전11시
- 장소 : 기쁨의교회(구, 북부교회) 선교관 307호
- 감사 :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주최 : 포항여성회, 포항생활협동조합, 동화읽는어른모임
- 운제산 신행 : 3월 6일(토) 오전10시 / 오전 오아사 주차장에서 출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생생여성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3월 3일(수) 오전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 주요내용 : 불안정한 여성일자리, 여성 실업문제 및 정부 저출산대책의 한계 지적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907차 정기수요시위

- 일시 : 2010년 3월 3일(수) 낮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주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프로그램 : 개회사 / 문화공연 / 연대발언 / 생존자발언 / 성명서낭독 / 공동퍼포먼스 등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성추행에 맞서 조합장 해임을 이끌어 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여성직원들



나자', '퇴근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밖에서 식사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 직원들을 만나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과 언어적 모욕을 일삼은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장은 고발 당한 후 조합장을 사퇴하겠다고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 그러나, 사퇴한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여성직원 3명은 2009년 8월, 당시 조합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예금 고격을 유지하기 위해 만

지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성추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었다. 이에 피해여성들은 동료 직원 20여명과 함께 농협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10월 조합감사위원회는 명백한 성추행에 대한 조합장의 책임을 물어 조합 선거를 다시 하라는 '개선' 명령을 결정했고, 당시 조합장은 조합 이사회를 통해 2009년 12월 해임되었다.

이는 농촌이나 소도시 등의 지역사회가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사실은 숨기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겪은 진상과 진정성을 밝혀내고자 노력한 것이며, 성추행으로 인한 개선 명령을 이끌어내고 조합장을 헌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성추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최초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88CC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제9부 최동렬, 김기동, 백소영 판사



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8CC에서 근무하던 경기보조원 58명을 부당해고 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88CC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자임을 판정하였고, 10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인사소송을 제기한 '88CC 경기보조원 43명의 근로자에 대한 집단징계는

88관광개발(주)는 징계절차를 무시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근거하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원칙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법적 지위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과거 판례로 인해 법적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소신 있는 판결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기존 판결이 편협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법이 제대로 선다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도와 인식 변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단체로 출발하여 10년을 맞이했다. 여세연은 출범 당시부터 여성의 생물학적 대표성과 함께 여성주의적 대표성을 강조하고,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여성주의적 정치인을 발굴·육성·지원하는 활동, '선거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하고 지원하는 활동 등을 전개했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하 여세연)'는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정치참여운동이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인식하

다. 또한 예비여성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선거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과 차세대 여성리더들이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여세연은 여성활동제 도입운동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이 증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여성정책에 여성주의의 관점이 관철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여세연을 벤치마킹한 단체가 충북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출범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세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 및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천 활동, 성인지 예산 모니터 활동 등을 전개하는 여성정치운동조직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대구 애활원 성폭력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1심재판부(제12형사부), 2심재판부(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애활원 원장은 수 십년에 걸친 아동 성추행 혐의로 2008년 대구지방법원에 고발되었으나, 2009년 7월, 1심 재판부는 '녹화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장에 의한 증인교사죄가

유죄로 판결되기도 했고, 녹화진술영상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통해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고 진술은 믿을 만하지만, 생활교사와 피고인의 갈등구조가 피해아동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녹화진술로만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전폭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6세 미만 아동들의 진술은 녹화진술 영상으로 증거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화진술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신빙성을 의심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고 신빙성을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의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어린이 성폭력,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설 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되돌린 것이기에 걸림돌이 되기 충분하다.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은 무시한 채
출산 및 낙태방지 선언을 하게 한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

지난해 11월 9일, 성신여자대학교는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라는 제목의 특강을 열어 저출산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날 총장은 아이 6명을 출산한 이 대학 박모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행사 마지막에는 '행복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출산 서약서'를 쓰는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저출산 타개에 동참하자는 이 서약서에는 적극적 출산, 낙태 방

지, 가정 화목에 여대생들이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 여성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없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낙태를 문제시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도리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국가인권위 축소, NGO 옥죄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행정안전부

지난 2001년 11월, 각국 인권기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유엔의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이 지난해 3월, 행정안전

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성차별·성희롱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시행되면서 성차별업무와 차별업무가 통합·축소된 후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면서 성차별 업무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여성인권 신장의 큰 걸림돌이 되

었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지만, 이마저도 훼손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광주병곡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헌법이 정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출연진 및 스텝 소개



기념식 사회 권해호
(배우, 여성연합 홍보대사)



기념식 사회 최광기
(방송인, 전문사회자)



세계여성행진 사회 천준호
(KYC회원)



세계여성행진 사회 망치부인
(이경선)



축하공연 강하달림



퍼포먼스 페스테자



퍼포먼스 덕성여대 중앙풍물패 한대노리

- 연출자문 : 유수훈(숨 엔터테인먼트 대표)
- 기획 : 김미란(여성연합 기획부장)
 - 기획위원 : 강성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보광(한국성폭력상담소), 신하영옥(한국여성의전화),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수진(한국여성노동자회), 풀(한국여성민우회)
- 홍보 : 유일영(여성연합 활동가)
- 총진행 : 이구경숙(여성연합 사무처장)
 - 조직팀 : 김은혜(여성미래센터 사무국장), 오보람(활동가), 조이현임(활동가), 박지연(인턴활동가), 서혜석(인턴활동가)
 - 정책홍보팀 : 박차옥경(사회권국장), 김현애(활동가)
- 무대 및 음향 : 마당
- 영상촬영 : 칼라TV 이명선 리포터
- 디자인 : 새터
- Wild Women's Performing Arts Festival III 기획 및 실행
 - Lauren Bedard, Shawn Mcrae, Valerie Lemka, Tom Rainey-Smith, Liz Oh, Heather Evans

• 자원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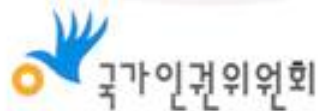
강태원, 김남희, 김세진, 김수미, 김아름, 김영란, 김예람, 김예슬, 김정원, 김정은, 김준연, 김태민, 김혜원, 남지영, 남진희, 류다정, 민혜진, 박래영, 박소현, 박영재, 박우정, 박지영, 박지은, 서미석, 신서정, 신한솔, 심보연, 심재승, 양은실, 엄선혜, 유은송, 윤수진, 이가형, 이다미, 이다정, 이민성, 이수빈, 이아름, 이윤아, 이윤영, 이은민, 이혜리, 이혜원, 임유진, 장다혜, 장서연, 전수지, 정무건, 정설희, 정소리, 조예림, 조은비, 조혜진, 최수원, 최아영, 최옥숙, 최지영, 최혜림, 하경은, 현승혜(이상 60명)



제26회 한국여성대회,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품협찬 공동제약, 연출 숨엔터테인먼트, 영상촬영 및 생중계 칼라 TV, 수화통역 청음회관, 축하공연 강하달림, 페스테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발전을 기원하며,
여성들의 큰 축제, 3·8 세계여성의 날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차별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향한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재단대표 최열



정글같은 세상,
그나마 당신들이 있어
숨을 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숲트리오

성공회대학교
김진업, 김창남, 박경태 교수

미래의 여성운동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응원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주임교수 허성우

비전선언문

대안사회를 향한 여성연합 비전선언문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 창조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우리는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서 다양성과 차이, 내부 민주주의와 사람을 중시하는 성찰적 진보를 지향한다.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여 서로에 대한 믿음 속에서 힘 있는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나아가 상호 배려와 자매애 속에서 다양성과 차이가 내부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고 창조성으로 피어나는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활동가들이 운동 속에서 비전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동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생활화를 위해, 풀뿌리 방식과 자발적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생활세계는 성평등 가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이자 최종 목표점이다. 또한 여성세력화의 기본 단위로서 성차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현장이자 대안을 창조할 수 있는 희망이다. 우리는 풀뿌리 여성들을 주체로 그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으며 실천하는 생활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여성을 차별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돌봄과 나눔의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사회 형평성과 공공성,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돌봄과 나눔의 생활공동체가 살아있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한다.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평화를 통한 통일'을 실천한다.

우리는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여성교류, 평화 문화 확산,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평화형성자와 화해자로서 통일과정에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여성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한다.

양극화 사회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권,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한다.

평등·평화·생태·다양성·배려·투명성의 가치를 실천, 확산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든다.

난개발로 인한 생태 파괴,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 물질적 이기주의, 권력층의 부패, 타자에 대한 배려 부족, 다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등 아직도 우리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대안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면서 정치사회와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자로서 역할을 높여낸다. 우리는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8년 1월 9일 22차 여성연합 정기총회에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념일이나, 수업주제에 맞추어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잠깐 생각해 보는 5분 수업 엽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쉽게 다가 설 수 있다.”
“어렵거나 딱딱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 좋다.”

-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 중

교실의 숙표

중학생이
채워야할
생각주머니



용서란 누가 나에게 한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시 열어 주는 것



여성이기 록 하고 여성이기 역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이기 록 하고
성평등 도서관 여가
여성이기 록 하고 여성이기 역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비매품
7624

다들 듣고 있는 그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로
각계 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진정한 평등과 상생의 미래사회 구축을 위해
평등사회를 일구는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대안적 돌봄사회 건설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참여 : 모금의 전 과정과 기부금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국민은행 079801-04-001536 예금주:한국여성재단

농협 1279-01-000251 예금주: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기부하기'로 참여하세요.

지원사업 : 모든 지원사업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지원합니다.

성평등사회문화조성지원 여성인권증진사업, 성차별적 관행·제도개선 사업 등

여성리더십향상지원 여성활동가 국내 학위과정·해외연수, 심, 공익분야 여성리더 육성 등

여성복지향상지원 여성Microcredit, 여성가장·활동가 건강검진·치료비 지원, 물품나눔 등

사회적돌봄문화확산지원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지원, 여성중심 대안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등



주소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02-336-6364 / 팩스 02-336-6459
이메일 womenfund@womenfund.or.kr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